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이은정 한국맥넬티 회장

커피·드립백 대중화 이끈 주인공 “제약·바이오 분야까지 사업 확장”



커피 벨트(Coffee belt)가 아닌 한국에서 만든 'K-커피', 'K-음료'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여성 벤처기업인이 있다. 지난해 제 61회 무역의 날엔 '7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커피 등으로 해외에 수출한 금액은 840만 달러 어치에 달한다. '수출 1000만 달러' 기록 달성도 머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커피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이 회사 커피를 마시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바로 한국맥넬티와 창업주 이은정 대표이사 회장의 이야기다.



맥넬티 스테비아 당제로 커피믹스.



맥넬티 핸드드립 커피 버라이어티 선물세트.



맥넬티 행복을 주는 커피 블루마운틴 스페셜티 블렌드 분쇄 원두.

“K-팝 등 'K-컬처'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부터 매년 해외 전시회를 5~6군데 나간다. 한국의 커피문화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전 해외로 나가야한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동 지역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코로나 직전까지 검토했던 해외 생산 공장도 향후 시장 추이에 따라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국맥넬티 본사에서 만난 이은정 회장의 포부다.

이 회장은 최근엔 기존 제품 외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스테비아를 이용한 커피믹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새로 선보였다.

“미국 아마존에선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 궁금해 미국 지인에게 시장 조사를 부탁했었다. 그랬더니 상위 20개 중 10개가 '설탕 제로' 제품이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비아 커피믹스, 디카페인 커피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설탕이 제로인 라떼, 핫초코도 내놨다. 복숭아, 청포도, 오렌지 등을 원료로한 건강차도 만들었다.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 20여 개국에 우리 제품이 나간다. 몽골에선 편의점에서도 맥넬티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필리핀에선 대형마트에도 들어간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산증인이자 커피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 중 한명이다. 대학 졸업후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처음 접한 사업 아이템이 커피였다. 당시 서울 명동 등엔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한잔에 900원짜리 커피를 셀프서비스로 팔던 시절이었다.

'카페 맥넬티'로 그가 직접 커피사업에 뛰어든 것이 1993년이였다. '한국맥넬티'는 1997년 탄생했다.

이 회장은 “한국 커피의 모든 변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다. 스타벅스가 진출하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기 시작했다. 최근엔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편의점 커피도 가세했다. 커피는 대기업부



1993년 사업, 1997년 '맥넬티' 탄생
시장 추이따라 해외공장 다시 도전

스테비아·디카페인 커피믹스 개발
설탕제로 라떼·핫초코, 건강차 출시

클레오파트라 애용하던 '블랙커민'
식약처 인증... 특화제품 출시 예정

“커피서 번 돈 제약사업에 투자
난 다시 태어나도 기업인 할 것”

터 중소기업, 그리고 1인 카페 등 생태계가 무척 다양하다. 한국의 커피문화는 매우 유니크(독특)하다”고 말했다.

▲인스턴트 커피믹스 출시(2003년) ▲커피업계 최초 벤처기업 인증(2005년) ▲국내 커피업계 최초 코스타다 상장(2015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2021년) 등이 한국 맥넬티와 이 회장이 걸어온 길이다. 그는 '사람들이 왜 원두커피를 마시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 한 대학과 티백을 개발, 시장에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일상화됐지만 이 회장이 일본으로 달려가서 가져와 국내에 선보인 것이 드립백 커피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바빠졌지만 드립해 마시는 커피는 풍미도, 건강에도 좋다. 종이 필터로 거른 커피는 혈관에 좋다. 드립 커피의 대중화에 (내가) 조금은 기여한 것 같다.(웃음)”

'공정무역'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기 전 이 회장은 관련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제품(원재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사회운동이다.

주로 후진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해 온 커피는 대표적인 공정무역 아이템 중 하나다.

이 회장은 2019년엔 국제공정무역기구 명예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그는 “공정무역커피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한다. 검증이 된 좋은 원료(제품)를 제값주고 사는 착한소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커피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커피 생산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이 되어 우리가 좋은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다. 공정무역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맥넬티커피 온라인 공식몰 한쪽엔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 회장은 2013년초부터 2년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 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2025년이 마침 뱀의 해다. 뱀은 크면 허물을 벗는다. 이게 혁신과 맥을 같이 한다. 벤처는 혁신해야한다.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혁신해야한다. 창업하는 후배들은 가장 가까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절대 안주하면 안 된다.”

커피에서 시작한 이 회장은 바이오(맥넬티바이오)와 제약(맥넬티제약)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커피는 배우지 진회를 모델로 국내외에서 전방위로 사업을 펼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맥넬티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7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은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전년보다 더욱 성장해 9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시설을 갖춘 맥넬티바이오 충북 증평공장에선 유산균, 발효효소, 플라젠, 곡물효소, 홍삼정 등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도 다이어트를 위해 애용했다는 블랙커민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증을 획득, 이 원료를 활용한 특화제품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커피에서 벌어들인 돈 제약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도전하는 재미가 있다. 이게 벤처 아니냐(미소). 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인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다. 공정무역 등 커피 생태계를 만들고, 제약사업을 통해 인류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도전에서 얻는 기쁨이 어느 것보다 큰 것 같다. 난 다시 태어나도 기업인을 할 것이다.”

/글·사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국에 정보 유출될라'...대만, '안보 우려'로 딥시크 이용금지
▲빌 게이츠 “가상화폐? 전혀 쓸모 없어...스스로를 속이는 짓”
/사진 뉴시스

▲극우 정당 손잡은 독일 기민련, 거센 역풍 직면...전국서 시위
▲美 연이은 항공기 추락...필라델피아서 의료용 체트기 추락

▲中상무부 “WTO 제소·상응 조치할 것...美관세 강한 불만과 단호히 반대”
▲싱가포르 정부, 딥시크 수출통제 자국 우회 의혹에 “美와 협력”